

94.9.26

情夫와 함께 남편독살

30대惡妻 구속

서울양정경찰서는 24일 자신의 부정을 눈치챈 남편을 정부와 함께 독살한 처 金洙蓮씨(35·서울강서구등촌1동)와 金씨의 정부 呂運澈씨(34·구로구

수곡동)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.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해 9월부터 呂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던 중 남편 金英培씨(45·개인택

시운전사)가 눈치를 채자 지난 6월24일 밤11시반경 서울등평구수색동 146번 버스중정부는 공터로 남편을 유인, 청산가리가 든 컵술을 피로회복제로 속여 음모수와 함께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체를 차에 싣고 경기가천군 열등고속도로변에 버렸다는 것.